

그림책 《느티나무의 기억》과 함께 5.18 민주화 운동 이해하기

구성 및 집필 심진규(초등교사, 동화작가)



느티나무의 기억

소연 글 | 조아름 그림

이백 살 넘은 느티나무와
아픈 기억을 공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살아남은 미안함에,
다른 한 사람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용서를 빌기 위해
느티나무를 찾습니다.

느티나무의 기억에 남은 그날의 이야기.

| 교과 연계 |

국어 3-1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국어 4-1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국어 5-1 2단원. 작품을 감상해요

도덕 5 6단원.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사회 6-1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5.18 민주화 운동 이해하기

1961년 5월 16일,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군인들이 무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정권을 잡는 행위)을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18년 넘도록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동안, 국민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를 수도, 밤거리도 돌아다닐 수 없었으며 독재 정부를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었지요. 박정희는 영원한 권력을 꿈꾸다가 1979년 10월 26일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국민은 이제 독재 정치가 끝나고 민주 사회가 오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한 틈을 타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 즉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에 또다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에 저항하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나라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군인들이 나서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을 선포합니다. 정치인이나 시위를 벌인 학생, 시민들을 수없이 잡아가고, 휴교령을 내려 학교 문도 닫았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전남대학교 정문을 막고 서서 학교에 가려는 학생들을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계엄군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잡아갑니다.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인파가 시위에 참여합니다.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에 있던 계엄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자 수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군인들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시민들은 시민군을 구성하고 계엄군에 맞서 싸웁니다. 계엄군은 잠시 물러났지만, 광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 버려 광주를 고립시킵니다. 그래도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민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도청에 있는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옵니다. 도청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에 죽어갔지요. 무기를 버리고 도청 밖으로 나오는 시민군에게까지 총을 쏘았습니다. 결국 열흘 동안의 민주화 운동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도 많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책임이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5.18 기념재단 초등학생용 교육자료 재구성

왼쪽 글을 읽고 시간 순서에 따라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1961년 5월 16일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2월 12일



1980년 5월 17일



1980년 5월 18일



1980년 5월 21일



1980년 5월 27일

그림책 《느티나무의 기억》 읽고 생각하기

• 아래 그림 속 상황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고, 한 인물을 골라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지 적어 봅시다.



어린이, 대장 군인, 부하 군인

• 여러분이 선택한 인물이 되어, 위 그림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에게 짧은 편지를 써 봅시다.



모의 법정

2023년 0월 0일, 느티나무 아래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대장 군인, 부하 군인, 살아남은 어린이, 느티나무가 법정에 모였습니다. 판사의 진행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기록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판사	그날 현장에서 살아남은 어린이에게 묻겠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려주세요.
어린이	
판사	느티나무님, 그날 본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느티나무	
판사	대장 군인은 왜 어린이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까?
대장 군인	
판사	부하 군인은 왜 대장 군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느티나무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까?
부하 군인	
여러분이 이 재판의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래에 판결문을 적어 주세요.	
판사	

아직 5.18을 모르는 당신에게



5.18기념재단 누리집(518.org)과 오월학교 누리집(edu.518.org)을 둘러보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지를 만들어 봅시다.

